

PCC, 경기침체 따라 약세 전환

북미·유럽 시장 약보합세 지속 ... Groundwood Sheet 진출이 문제

PCC(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수요가 하향세를 달리면서 2003년 들어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모두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PCC 주 소비분야인 Uncoated Wood-Free 또는 Freesheet 제지(사무용 제지) 시장이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PCC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리더기업인 MTI(Minerals Technologies Inc.)를 선두로 한 PCC 생산기업들의 투자열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MTI는 2003년 5월 IP(International Paper)와 8개의 PCC 위성플랜트 공급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북미의 제지용 PCC 수요는 일반적으로 제지 생산량에 달려 있는데, 2002년에는 PCC 수요가 제지 생산량과 비슷했으나 2003년 초에는 Coated Freesheet 제지 수요가 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03년에는 1-4월 Uncoated 및 Coated Freesheet 제지 모두 수출이 감소했으며 수요패턴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PCC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J.M. Huber의 자회사인 Huber Engineered Materials에 따르면, 미국 및 유럽 Uncoated Wood-Free 제지 시장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02년 생산능력이 약 300만톤 감축됐다. 이에 따라 제지시장은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플랜트 가동률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PCC 시장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된 면도 없지 않으나 시장악화의 주 요인은 PCC 생산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사무용품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Uncoated Wood-Free 제지 수요가 감소했으나 업그레이드된 Groundwood Sheet가 오프셋 시장에 진출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PCC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PCC 시장은 일반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으며 생산기업들이 각기 다른 제지공장과 차별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PCC 가격은 Formula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플랜트가 완공되면 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보통 10년 정도이다.

Specialty Minerals은 2003년 4월부터 비제지 응용제품, Ground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Talc 및 Lime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PCC에 대해 4%의 할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3/05>